새로운 도약 위한 로드맵 발표

동화사,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개최

1월 26일 대구동화사에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치러졌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8차 회의가 1월 26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등 종단 지도부 스님들이 참석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종단 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화두로 출범한 제33대 총무원이 최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종단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운영의 개선점, 사찰 토지 처분, 외국인 승려 수계절차 변경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덕현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퇴전의 신심으로 수행정진

2010년 종단 개혁 및 중흥 원년 계획

원봉스님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 전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태고종이 2010년을 종단 개혁 및 중흥 원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태고종 입법의결기관인 중앙종회 의장 원봉 스님(청주 보현사 주지)은 최근 신년대담을 통해 "종도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종단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강을 확립하며 종단 살림살이를 수립하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다. 종단 각종 현안 수습에 중앙종회가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당시, 각 후보 진영 간 갈등양상을 초법적 형식으로 풀어내 특별한 경우 승가가 반드시 법치로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며 선거를 원만히 치러낸 장본인이다.

원봉 스님은 "지난해 종단은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올해는 실추된 종단 위상을 꼭 회복해야 한다"며 "구체적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 재차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종단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전향적으로 접근 ·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봉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수행과 정진이다.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살이의 기본 이치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조석예불부터 지키는 등 초발심으로 돌아가 승려로서의 본분부터 챙기는 것에 종단중흥의 요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봉 스님은 "불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불교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는 자비에 있고, 자비는 실천에서 드러난다"며 "승려는 대비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단의 종단 부채 해결에 관해 원봉 스님은 "돈이란 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분명히 빌린 사람과 사용처가 있을 것"이라며 "누가 빌려서 어디에 썼나를 명확히 하면 해결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해 종단 부채의 공과 사를 가려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스님은 "법적 절차를 어겼다면 어긴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면 되는 일이고, 권한을 남용한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 누구나 다 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리 됐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독단이나 실수, 무관심이나 책임방기 따위가 그냥 덮어지지 않는다. 종단 부채도 담백하고 빈 마음으로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과중한 종단 부채에 일각에서 일고 있는 중앙종회 책임론에 대해서도 스님의 입장은 확고했다.

원봉 스님은 "중앙종회를 두고 식물 종회니 시녀 종회니 거수기관 운운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중앙종회가 의결 감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며 "이는 삼권분립이 실제적으로는 확립되지 못한 종단 현실이 그 배경"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종회기능을 정상화 시키려면 풍토 및 제도개혁이 절대 요망된다. 종회의원은 종도를 대의한다는 자긍 내지 책임을 더 절실히 인식하고 종도들은 내가 종단의 주인이라는 애종심을 더 확고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원봉 스님은 종헌종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법이 총무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스님은 "사회의식이 바뀌고 시대흐름이 변하면, 종단도 바꿀 것은 바꾸고 변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는 종단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명실상부 선진화된 종단을 위해 종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봉 스님은 "아이티의 지진피해에 보다 많은 불자의 도움이 따르길 기대한다"며 "2010년이 태고종의 위상을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종도가 일심으로 단결하고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신년대법회 봉행

인천불교연합회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1월 27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인천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부시장 홍종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권진수, 윤상현 국회의원,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상임고문 한화갑,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 당위원장 , 신학용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과 김혜운 명예회장스님과 인천불교총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해동불교범음대학 어산단의 상주권공작법을 통한 불교전통의식이 시연됐다.

대은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법을 찾는데 인천의 불교계가 합심하자"고 강조하며 "인천이 외형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불자들이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진리 마음껏 그리길

팔공산 석굴암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

연등장학회 이사장 법등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등장학회(이사장 법등)는 1월 28일 대구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법당에서 2010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서 연등장학회 이사장인 법등 스님(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은 영남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 30명에게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주며 격려했다. 법등 스님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백지장에 마음껏 그리는 훌륭한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등장학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1명에게 장학금 1억7500만원을 전달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설립선포 대법회

국제승가법황청

11개 군소종단들이 모여 국제승가 법황청 설립선포 취임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군소종단 지도자 스님들이 대구에서 국제승가법황청 설립선포 협의체를 결성했다.

한국불교여래종(종정 석인왕)과 대한불교연화종(종정 석동원) 등 11개 종단 지도자들은 1월 26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국제승가 법황청 설립선포 취임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종단의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들은 석인왕 스님을 대법황으로 추대하고 나머지 10개 종단 대표자를 국내외 법황 · 법왕으로 추대해 국제승가법황청을 설립했다.

석인왕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의 국제화 · 세계화를 위해 세계 각 나라에 불교를 홍포해 한국불교 승가교단의 위상을 여법하게 널리 알리는 등 불교진흥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서울 구마다 도량 세우겠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도량 개원법회 봉행

동대문구 도량 개원법회에서 우학 스님과 사부대중이 서울 각 지역구에 도량 개원을 발원하고 있다.

대구지역 대표사찰 중 하나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서울 동대문구에 도량을 개원하고, 서울 각 지역구에 도량을 개원할 것을 발원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1월 23일 동대문구 제기동 불로장생타워 4층에서 '서울 동대문구 도량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승가대학장 철운 스님,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의원, 탤런트 선우용녀 · 전원주 씨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우학 스님은 "서울지역 불교의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지금, 더이상 위대한 진리성과 무한 자비성을 자랑하는 불교의 포교를 미뤄서는 안된다"며 "정법도량의 반야용선에 올라 서울 불교를 살리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서울시 25개 지역구 가운데 사찰이 단 한곳도 없는 지역구도 있다"면서 "서울 25개 구마다 법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도량 주지 청호 스님은 "동대문구 법당이 청정한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축사에서 "법당 개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져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도량은 회주 우학 스님의 1000개 도량 건립 불사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대구 본원을 비롯해 경산 칠곡 구미 포항 감포 자인, 미국 뉴욕, 중국 청도 분원에 이은 한국불교대학의 10번째 도량이다.

동대문구도량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 앞 불로장생타워 4층에 1485㎡규모로 마련됐다. 동대문도량에는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비롯해 선방과 차실, 서점, 후원, 요사채, 샤워실 등을 갖췄다. (02)6456-7228

조동섭 기자

겨울방학교실 개최

서구노인복지관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1월 5~29일 인근지역 50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5기 겨울방학교실을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사물놀이, 사군자, 밸리댄스, 발마사지 등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특기 과목을 익히며 보람된 방학을 보냈다. 특히 사군자반은 어르신 강사가 지도하는 과목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이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눈길을 끌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결손가정 돌보기

해광 스님 앞장

5년간 매주 토요일 종교집회 및 결손가족 자매결연 학생들을 보살피며 매월 1회씩 학생들과 상담하고 장학금도 지급해 온 스님이 있다.

법무부 소년원 지도위원 해광 스님은 1월 20일 대덕소년원 퇴원학생 최군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접하고 인천 송림동 자택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진로를 상담했다.

최군은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살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스님은 위로금 전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며 격려하고 가정의 화목과 관심을 당부했다.

해광 스님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돕고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묵조선 가풍' 수행의 덕목

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월 26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에서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감찰원장 및 교구원장, 임원위원이 모인 가운데 신년하례법회 및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덕우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새롭게 한해를 다짐하고 묵조선의 가풍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 · 포교해 불교계의 꽃을 피우자"며 "종도들 모두가 종단을 위해 솔선수범해 2010년 한해를 더욱 빛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임원회의에서는 총무원 정사기금 마련을 위한 수륙재 봉행과 불기 2554년도 계획안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아이티 지진참사 성금으로 전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 소장 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홍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홍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